

“尹 정부 심판·전북 홀대 척결”

민주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4·10 총선 필승 다짐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0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관계자, 전북지역 10명의 총선 후보 등이 참석해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과 전북 홀대 척결’이 주된 화두였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민들은 정부의 전북 홀대에 대한 심판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의 홀대에 맞서 전북 뭇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북 10석을 모두 석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국회의원 후보 및 재·보궐 선거 후보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승리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갑에 출마하는 김윤덕 예비후보는 “전북이 홀대받고 나후된 것에 대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이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병에 출마하는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북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전북을 넘어 수도권에서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130년 전 전북에서 동학혁명을 발생할 때 처

럼 이번에 전북혁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홀대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완주·진안·무주, 남원·장수·임실·순창, 군산·김제·부안·갑·을, 익산 갑·을,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전북을 홀대하던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 발의 의료복지 지원 조례안 가결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제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인 제1형 당뇨 환자(소아, 청소년, 성인 등)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 등 고가에 달하는 소비성 의료 물품을 평생 구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해당 조례는 사해보장협의를 거쳐 구제화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최근 △한이 등이 △되어나다 남원 △PLAY 남원 등 관광 마케팅에 적극적인 시정에 맞추어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갑질예방·청탁금지법 교육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갑질 및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 도 및 산하기관 팀장급 이상 간부 7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속 5급 이상으로 진행하던 대상을 확대해 감사위원회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위탁기관 등 3개 기관의 팀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참여시켜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무법인 이수이 선형 대표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갑질 행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갑질 근절 방안과 간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공직자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서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농산물 안정적 가격안정체제 마련”

새미래, 금사과방직법·EBS 무상교육 실시·대중교통 상한제 등 민생공약 발표

새로운미래가 20일 금사과 방직법 제정·EBS 무상교육 실시·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실현 등 민생공약을 내놓았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문관에서 실용적 민생정치 3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물가대책을 논의한 이후 19개월만에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농산물 납품 단가 보조, 할인 판매 지원, 대체 과일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생산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한 개에 1만원씩하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에서는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의 수입은 안 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폐지하고 안정적

가격안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금사과 방직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곁에서 낚은 카르텔을 깨는 새로운미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추진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초·중·고교 학생 인터넷 강의 뿐 아니라 성인의 자격증 강의까지 추산하면 가정마다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가 대입 및 초·중등 온라인 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있다. 수익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공익적 역할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수익구조를 조정해 EBS를 기반으로 전 국민 온라인 무상

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BS 모든 콘텐츠를 무료화하고 국가자격증 관련 무료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월 6만원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대중교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버스완전공영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S-BRT △BTX 도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가용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동행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다.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하고 자전거(따릉이)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희가 추진하면 연간 1조 2500억원이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

“22대 국회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앞장 설 것”

3선 도전 민주 안호영 의원 진안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과 정책 협약 체결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9일 진안군에 있는 안호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이재욱 전북연합상임대표와 임수진 진안본부장, 박관순 진안사무장을 비롯한 지역 회원과 정용태 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김명갑·동창욱 진안군의원, 윤수봉 완주군의원이 함께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은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지난 19일 진안군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사진=안호영 예비후보측 제공)

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기후위기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로 인해 농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지속과 균형발전이 전 국민의 삶의 질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부터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농업의 지속과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새로운 희망의 정치 실현 노력”

새미래 신재용 예비후보, 익산갑 출마 공식화 “우리나라 3대 위기 직면, 아무도 대안 제시 못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등 3개 공약 발표

전북에서 보기 드문 20대 청년 후보자가 22대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에 참신하고 신선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익산갑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1호 영인재인 신재용 예비후보(29)가 익산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앞서 지난 18일 신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익산갑 출마를 선언했으며, 예비후보에 등록한 바 있다.

신재용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로부터 자신이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 익산 발전을 위해 그 재능을 쓰기로 결심하고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재용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익산과 대한민국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정치인, 신재용이 바뀌어야겠다”고 말했다.

신재용 예비후보는 “오랜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익산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강조하며 “정치적 지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은 발전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익산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정책을 넘어서 익산에서의 삶을 보다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세 가지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내건 공약은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총력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청년 정책 및 인구소멸 극복 방안 구축 등이다.

신재용 예비후보는 “자랑스러운 익산의 아들 신재용이 잃어버린 익산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며 “국민 행보를 우선으로, 새로운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를 글로벌 음식관광도시로”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 음식종합학교 유치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를 세계적 음식관광도시로 창출해 내자고 제안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점을 통해 “전주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은 한결같은 고민이었다”며 “맛의 고장답게 음식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게 귀결점”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는 음식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음식을 맛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구호만 외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전략을 강구해 실효를 거두는데 전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마을을 구심점으로 한국과 한식, 한복이 어우러지는 한문화를 구축하되 전주 4대문을 복원시켜 그 안 곳곳에 맞춤형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밥마을, 김치체험마을, 왕의 음식마을, 가문내림마을, 건강치

유 천연음식 마을, 가백 마을 등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비빔밥 축제의 외연을 넓혀 ‘천년왕도 전주음식축제’를 개최하되 홍보국대회를 위해 K-푸드 유튜브 엑스포’를 병행할 것도 제시했다. 이 경우 K-푸드의 세계화와 전주 음식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체류형 음식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전주시가 추진중인 한옥호텔과 캠핑장, 전주관광케이블카와 연계한 세계음식백화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 백화점이 본점이라면 특화거리는 지점 성격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에는 국내 유일의 한식조리학교가 있었으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립수대하인 한국음식종합학교를 전주에 유치해 M2세대 인력 양성의 산실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돼 있던 음식의 고장 전주에 음식종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국비를 조달받기 때문에 학생 유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 “부지는 예코시티 기무사 부지를 무상 양도받는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선 첫 포상금 지급 사례이며,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하여 160만원, 예

비후보자와 그 지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최대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특별취재반